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40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6. 20.(금) 14:00~16:19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불참위원 : 김미라 위 원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제40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총괄팀 신연주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5년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 의결안건 1건과 비상임위원 지원사업 모니터링 참여에 관한 논의안건 1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기숙 위원 :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 의결정족수 파악은 우리 비상임위원들을 하는 것이고요. 사무처에서 입회하에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 회차마다 몇 명이 하던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처장, 본부장들은 참여를 하고요. 각 팀별로 보고사항이 있는 팀장이 참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참관하는 것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참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성기숙 위원 :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사전 신청을 받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자격은 없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중 자기가 원하면 30명 내에서 하는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번 보면 노조위원장께서 대면으로 입회하에 하셨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노조위원장이 늘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공석이고 비대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노조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왔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비대위원장은 따로 없고요. 비상대책위원이 지금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 자리에는 안 계시고 영상으로 참관을 하고 계십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예.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5월 23일에 개최한 제397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서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98차 전체회의 의결안건은 2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6월 13일에 개최한 제399차, 제400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각 1건씩 상정되어서 모두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전차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장미진 위원** : 400차 회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00차 회의가 400차인데 정말 잊지 못할 400차가 될 것 같아요. 기금 100억 원을 사용하는데, 추경을 하는데 그냥 별다른 논의도 없이 그냥 12시간 만에 모두 동의하는 바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되는 건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기금의 돈을 쓰는 것도 위험할뿐더러 예술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지원이라는 게, 티켓지원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아무런 논의도 없이 써도 될까?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하다못해 지금 전 국민 25만 원도 계속 논의를 하고 확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100억 원을 이렇게 쉽게 아무런 논의도 없이 결정한다는 게 그렇고요. 또 기금이라는 게 한번 쓰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2004년도에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을 때 4,800억원이었죠? 그런데 그게 참여정부에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자료가 왔다 갔다합니다만 2,100억 원짜리도 있고 1,8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감소했고 그 뒤로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신히 지금 보니까 900억 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감사한 게 최근 3년 동안 증가했더라고요. 623억 원에서 650억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가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00억 원을 꺼내서 쓰는데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내년에 그냥 불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800억 원 남은 기금. 몇 년 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기금 4,800억 원이 있었던

문화예술위원회와 기금이 없어지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상당히 위상이 다를 텐데 이렇게 아무런 논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도 너무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쪽에 50억 원, 전시 쪽에 50억 원을 하는데 그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 시장이 좀 위축돼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는데 시장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적게는 6~7%에서 티켓 판매액은 1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아무런 논의 없이 가셔도 되는 것일까요? 저만 그런 것일까요?

**정병국 위원장** :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역사를 잘 아실 텐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국회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거나, 연초에 출범할 때나 연말에 출범할 때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전면 수정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연말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6월 대통령 선거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반년 이상,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흔적을 남겨야 될 텐데, 추진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짜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지난 정부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탄생한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탄생한 겁니다. 그것도 역시 그 당시에 150억 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거의 전례가 없었다면 문제제기를 해서 뭔가 시정을 하고 쓰더라도 조금 더 유용하게 쓰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혹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을 쓰지 않고 다른 예산을 쓰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 이후 기재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전체 우리가 1년에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순수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쓰는 액수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1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또는 다른 기금들, 복권기금 등의 편성을 이쪽으로 돌려줘야지만 우리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당국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수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논의는 좀 해 보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그쪽에서도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논의절차가 보통 그렇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인수위가 보통 있고요. 인수위 기간이 보통 3개월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하게 되면 논의구조도 필요한데요. 탄핵 이후 탄생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부처에서도 해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기획조정팀에서 급하게 문자로 설명을 하셨는데 크게 세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었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미 13조를 의결했고 어제 또 의결해서 거의 30조 가량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현장의 국민 모두에게 50만원 가량 지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층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위원회가 지급부터, 이미 다 의결이 되었고 통과가 된 사안이라서 보니까 시각예술 49억 원, 공연예술 51억 원으로 거의 100억 원 정도 의결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각지대 없이 적재적소에 제공이 돼서 문화예술 향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위원회가, 이게 실행 주체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정교하게 한번 설계하는데 저희가 안을 준다거나 역할을 하는 것. 지금 의결된 것은 지나간 과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흔히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것인

데 분배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거센 물줄기는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을지? 가치 창출이 될지? 실행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으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국 집행은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의해 주면서 기재부에다가 편성을 하되 그것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이 문화향유를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문화향유에 돈을 쓰는 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 보내지 말고 그 자체의 예산집행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여지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보냈고요. 일단 아직은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정부 추경예산(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저희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는, 특히 문화 쪽의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용됩니다. 불용이 되면 문예진흥기금으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완전히 잘 쓰이면 다행이고 안 쓰이면 다시 저희들에게 환수가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안이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집행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게 되니까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 과정은 장미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진 위원** : 충분히 저도 납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12시간 만에 통과하는 것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50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50만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앞으로 숙제일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0만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면서 동기간에 티켓판매수가 834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834만장의 30%는 대중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도 없이 그냥 50만장이라고 너무 러프하게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고 회수될 돈이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후 어떻게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들을 꼭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게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 꼴이 잘못하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급조된 것 아닙니까? 굉장히 급조된 정책인데요. 기존에 논의하는 구조가 예술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일단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동의는 했는데요. 문제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굉장히 혼란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비한 점도 많고 아직 정착도 안 되었고요. 물론 몇 년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정책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것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처럼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지금 사용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100억 원 정도를 푼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문체부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문체부와 예술위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하지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줄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정말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추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병국 위원장** : 솔직하게 제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 예결위

의 의견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성향상, 성격상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메커니즘을 아는 입장에서 해 봐야 남아 있는 실무진들만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불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저는 못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좋고요. 기록에 남기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하고 소정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저는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될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지만 나중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그렇다고 면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민간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조건부로 했는데요. 100억 원이 줄었을 경우 100억 원을 회복시킬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저쪽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명목이 여유자금운영의 항목이잖아요. 여유자금이 줄었으면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필요사항이 있을 때 못 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를 적시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에 대해 면제 해 주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기획재정부 평가를 우리가 직접 안 받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지금 평가는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대상은 아닙니다만 기재부가 어떠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펑크난 게 100억 원 있어요. 그래서 “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 때 급하게 민생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100억 원을 빌려 달라.” 해서 빌려주고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해 주겠다.” 했는데 반영을 안 해 줘요. 제가 그 이후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구문모 위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소분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플랜을 안 세우면 나중에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저희들이 사인을 했잖아요.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토론하고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토요일에 기획조정팀장님 전화가 왔을 때 질문을 드렸고요. “선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냐?” 라고 여쭙봤고 코로나 당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불용 가능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첫 번째로 효과성 있게 잘 쓰이는데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용이 되었을 때 애초에 설계해 놓은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불용된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 시각예술이나 공연의 지원이 아니라 다른 데로 전용해서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정병국 위원장 : 우리한테 환수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기숙 위원 : 환수되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정병국 위원장 : 우리 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위치 되는 거죠, 불용된 액수만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43호 2025년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달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소위원회에 대해서 소위원회별로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소위원장 위촉과 운영계획 즉, 각 소위원회에서 어떤 과제를 다룰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에 대해 오늘 결과를 보고 드리고 운영계획을 확정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소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서 경영전략소위원회,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보시는 표에 있는 운영 목표는 소위원회별로 운영목표를 수립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는 설문에서 주신 의견들을 소위원회별로 종합해 놓은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경영전략소위원회가 6월 19일 어제 개최되었고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되지 못해서 개최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의결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위원회 소위원장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소위원장 결정의 건은 경영전략소위원회는 어제 열린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위원장을 뽑지 못 했고 차기 소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별도로 소위원장을 두지 않고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는 최초 논의에서는 중장기 비전 전략과 경영전략개선 등 전략을 점검하는 과제. 그리고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 과제 또 데이터 기반 지원사업 분석 연구 및 기금운용 개선, ESG 경영 등 지속 가능한 예술정책 제안 등을 말씀 나눴는데요. 논의 결과 콤팩트한 소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집약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를 점검하고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액션플랜, 실행 과제 중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실행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완료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원회까지 논의해서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작년부터 진행해 온 문화예술생태계 2차년도 연구와 제도, 사업개선을 위한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별로 인터뷰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기로 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4)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건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 소위원회별 소위원장 위촉과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운영계획(안)까지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있는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요청을 드리는 건은 소위원장의 경우에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경영전략소위원회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말씀드린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이런 말을 전체회의 회의자료 문구에 쓰는 게 어색하고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제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께서 여쭙보셨잖아요. 그런데 대답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갔어요. 처음부터 합의된 내용이 사실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성 위원님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소위원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다수결.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배은주 위원님이 어떠냐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합의보다는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견을 약간 절충한 것인데요. 이게 “합의가 되었다.”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의미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담당자한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처음 위원장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제언은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마지막에 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순서대로 의견이 진행되었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에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십사 배 위원님을 추천드렸을 때 성 위원님께서 “이미 논의가 된 사안이니까 다시 논의를 하지 말자.” 라고 의사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합의라는 의미가 조금. 이제는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합의라는 것은 뜻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합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합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그냥 모아서 다음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굳이 합의라는 것을 하자면 실무적 합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배은주 위원** :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합의는 아까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과 전체 합의를 했을 때 합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저희가 5명이었고 3명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문건을 ‘동의’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3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그렇게 마무리한 것이잖아요.

**성기숙 위원** :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는데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위원회 논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곧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배은주 위원님을 추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무처의 지원총괄팀장은 간사로서 진행하는 권한만 있지 회의에 직접적으로 소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위원님들 간에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되고 진행된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하시면 혹시 합의가 될까 해서 제가 제언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사무처 실무자 입장에서 권한 밖이라고 느끼셨으면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의 본부장님이나 상위 상급자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의 간사가 비상임위원들의 권한에 개입해서 추천을 한다는 게 용인되는 사항인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우리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얘기가 되었을 때 이훈경 위원님께서도 소위원회 위원장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를 하세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면서 그 회의 분위기에서 배은주 위원님이 가운데 위원장. 그러니까 좌장 역할을 하시는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공식으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확인받고자 하는 팩트체크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보기에 사무처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주관하시는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전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관여하지 말라.”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셨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 본 회의까지 가져올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사무처 간사가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언을 했는데 그게 못마땅하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정리가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가 소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제어를 하셔서 회의가 그 이후에도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본 안전 관련은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의 2개월 있으면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전담심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번 우리 본부장님, 사무처장님, 공연예술팀장님께 문예위 조직의 지원총괄팀 존속 여부 그다음에 역할론,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논의할 건은 아니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현장에서 왜 말을 안 하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사실 비상임위원으로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 업무역량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소위원회도 전담부서 변경 요청을 제가 드렸고요. 왜냐하면 작년 9월 초 첫 번째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가 겪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마 소위원장 관련해서도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난 회의 회차에 경영전략소위원회,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 의욕적으로 제가 소위원장을 맡아서 했으면 한다는 의사까지 표명을 했지만 제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도 그렇고 어제 경영전략소위원회도 그렇고 저는 소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철회를 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무처와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기본 선은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중에 추후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지시해 주세요. 우리 비상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회의에서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발언은 삼가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뒤섞어서 하다보면 사무처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시다 보면 연결돼서 그냥 발언권이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그 결론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 사회를 볼 때도 노조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제지를 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발언이라고 하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관련해서 제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날 사실 정확하게는 의장이 없이 저희가 회의한 것이 맞고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의장 없이,

**정병국 위원장** : 임시 의장이 없이 한 건가요?

**배은주 위원** : 임시 의장도 없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하면 임시회의는 연장자가 하거나 합의를 해서 해 놓고 해야죠. 회의를 잘못 하셨네요.

**배은주 위원** : 한 가지 예러가 의장 없이 회의를 진행했구요. 위원장을 두지 않기로 저희가 동의를, 5명 위원 중에 3명의 위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처에서 간사분이, 앞으로 간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는 앞으로도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의장 없이 간사가 주도를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두지 않았다고 하면, 소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죠? 5인이면 가, 나, 다 순으로 하든 연장자 순으로 하든 돌아가면서 하세요. 돌아가면서 “그날의 의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제가 직권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누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에 동의를 하시겠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 나, 다 순으로 하실지? 아니면 연장자 순으로 하실지를 정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마지막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소위원회의 임시 의장 유무에 상관없이 사무처 담당 팀장이 간사역을 하는데 위원의 권한을 추월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하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강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사무처에서 유념해서 향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소위원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돌아가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하고요. 그 순서는 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게 치시는 순간 결정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올려주셨잖아요.

**성기숙 위원** :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어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가 어디까지 되었을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올라온 게 저한테 보고된 것입니다.

**성기숙 위원** : 돌아가겠다는 말씀은 구문모 위원님이 어제 경영전략소위원회 말미에 김진각 위원님과 구문모 위원님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4대 4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하에 이런 의견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때 구문모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의견을 내셔서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라는 것이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2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임기가 1년인데 12월까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70%가 임기가 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새로운 위원들이 오시면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결정되면 그분들이 또 다시 시작할 것이니까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임기를 그때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새로 와서 다 다시 구성을 했거든요. 기존에 3인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성기숙 위원** : OT 때 위원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어느 때는 소위원회가 11개가 구성된 때도 있었고 임기는 거의 다 1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 1년으로 존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간다고 하면, 물론 불합리한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구성이 늦어졌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는데요.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 위원님이 계속 남아 계시니까 “이것은 계속하자.” 주장하셔서 관철시키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기숙 위원** :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소위원회의 임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제 2인이 추천되었고 4대4가 나왔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임기가 1년이라고 하면 2인 중에 1인은 연계 측면에서 계속 가시는 분이고 한 분은 12월에 종료가 되는 상황에서, 원래 소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임기 1년을 그냥 준수하고 연계성에서 그분이 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우리가 하던 흔적을 그냥 지켜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논의 사항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어서 비상임위원 지원사업 모니터링 참여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우선 사무처에서 지원사업 대상으로 평가 모니터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난 4월 395차 회의 때 관련 안건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달 5월 전체회의에서 성 위원님께서 다른 방향의 의견을 주셔서 이의제기를 해 주셨고 관련해서 장미진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현황을 더 보고 싶다고 자료요청을 하셔서 5월 전체회의 종료 후에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발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기관 지원사업 공연을 보러 오시는 것을 일단 직무수행 활동으로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계획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3년에서 2025년 지원사업 모니터링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오시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접근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장르위원으로서 “그냥 공연을 관람했던 것뿐인데 모니터링이었나?”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무수행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티켓을 제공하거나 좌석 확보를 해 드린 것도 다 포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비도 지급된 건과 자료를 공유해 드린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은 건들도 다 포함해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다가 2024년부터 많아진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왜 많아졌나?”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는 사실 사무처에서 판단하기로는 전담심 의제 심의제도 관련해서 위원회 안에서 이슈가 뜨겁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해당 지원사업 공연의 좌석 확보에 한계가 있거나 사무처에서 유료티켓이라고 해서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은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각 사업팀, 개별적으로 사업의 진행경과가 어떠한지? 모니터링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공연예술팀이나 몇 개 팀에 대해서는 정보를 별도로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일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2025년도부터는 전체회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지원사업 월별 일정을 취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팀장한테 요청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전담심 의제나 사업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존 지원사업의 평가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팀별로 지급기준이나 운영기준이 상이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일하면서 395차 회의 때 위원님

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구문모 위원님께서 몇 차례 참여를 하셨을 때 평가서가 실제 위원님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해당 의견을 수렴해서 붙임3을 보시면 앞에는 평가위원님들에 대한 평가서가 있고 붙임3의 양식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간소화해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한 것입니다.

향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비상임위원님께서 참여하시는 모니터링 보고서는 전담심의위원, 심의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 그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셔도 어떤 채점을 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없고요. 다만,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체회의 한 번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사무처에 다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각의 사업을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사무처에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이 평가위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음을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운영은 주요 사업인 창작주체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례비 같은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의 사례비는 용역비 예산 안에 포함되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위탁업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님께서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경우는 사무처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 해당 예산은 분리되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제 비상임위원들이 모니터링에 많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평가위원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사무처 예산현황이라든가 사업팀 의견은 다 조화를 한 상태고요. 지금 이 현안대로 운영해도 연간 예산현황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본격적인 의견 개선 이전에 담당 사무처인 지원총괄팀 문건에 대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전체회의 자료 10쪽을 보시면 (1)번 2023~2025년 비상임위원의 지원사업 모니터링 현황이라고 해 놓고 도표가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을 보면 성기숙, 왕치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전체회의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왕치선, 성기숙은 2024년 7월 31일자로 임명이 돼서 8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건에 2023년에 성기숙, 왕치선이라고 해 놓으면 성기숙과 왕치선도 2023년에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전담심의에는.....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적절한 공식문건이, 지금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것을 알겠으나 10년, 20년이 지나서 공식 문건을 갖고 해석할 때 성기숙과 왕치선은 2023년부터 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구문모 위원도 그렇죠. 성기숙, 왕치선 위원은 괄호를 하고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라고 표시를 하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각주를 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각주를 달든 이것에 대한 차별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문건이 되어야지 위원회 공식 문건이 모호하게 되는 문건은, 혹시 지원총괄팀에서 작성하고 상급자 단계에서 한번 스크린이 되는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자료는 제가 다 봅니다.

**성기숙 위원** :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식 문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달

라질 수 있으니까요.

**정갑영 위원** : 정중열도 빼야 되겠네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 도표 상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국회에서도 이런 표를 보고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모위원은 한번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위원님은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장인주, 정중열 위원도 있고요. 표를 만드는데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임기가 다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세요. 장인주 위원과 정중열 위원들도 다 표시를 해줘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주를 달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해 왔던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몇 년 전 것을 가지고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없어.” 그러나 명확하게 달아 주면 묻지 않아도 되니까 명확하게 달아주세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이 문건만 보면 2024년 9월, 10월, 11월, 12월 현재 진행형인데요. 전담심의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저는 전담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안을 모르는 국회의 보좌관이 해석할 때 “성기숙은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위원인데 2023년도 전담심의에 참여했으면서 뭐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덧붙여 한마디 하면 외부에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순서나 도표, 문구선택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고 사실과 팩트가 오염·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조심하도록 하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왕치선 위원** : 저는 실은 의욕은 대단히 많은 것에 비해서 모니터링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제가 “나는 참여를 못 했다. 이것을 빼 달라.” 라고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던 모니터링과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모니터링이 조금 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알고 있는 모니터링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평가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광폭의 모니터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에서 생각하는 모니터링보다는 폭이 넓으니 일반인 모니터링, 전문가 모니터링 아니면 문화일반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모니터링을 구분해서 명칭을 달면 좋을 텐데요. 이것을 몽땅 섞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해가 많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게 우리 예술위원회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부분이 여태 명확하지 않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수면에 올라왔으면 이 부분을 해서, 명칭이 있잖아요.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어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공짜표를 얻었는데 다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 공짜표를 얻어서 간 것이거든요. 요청한 적도 없고 내가 평

가서를 쓴 적도 없고 페이지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여기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쓰여있어 당혹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가능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보는 것만 가지고도 모니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하는 이유는 이것을 최일선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문화 행정가로서 내가 집행했던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자체의 느낌만 가지고서도 다음 사업을 설계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일반 모니터도 많이 합니다. 무작위로 해서 모니터 설문을 돌리기도 하고 의견을 물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나? 하물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의견 한마디라도 보고 느끼신 것. 내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직접 보고서는 안 냈더라도 이렇다는 한마디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니터를 하는 것을 보면 기획사에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는 나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앉아서 탁상에서 쓰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전공을 했던 전공하지 않았던 우리가 장르별로 전문위원님들도 두지만 일반 행정을 하셨거나 그 분야의 정책적 전문가를 두는 것은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심사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이것을 의결하자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만 되신다고 하면 저는 꼭 보고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이 모니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고 본부장님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병국 위원장 :** 어떤 부분이요?

**장미진 위원 :** 먼저 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신 분들의 모니터링은 기존에 진행이 되고 일반 분과나 다른 장르의 분들도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본부장님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그때 그냥 문화일반 분과의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한 적은 없었고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 없이 그렇게 갔다가 2024년도 말에 문화일반도 하시려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봤어요. 2024년 후반기에 문화일반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설명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논의 없이 그런 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23년도의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가서 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 번 공연을 봤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통계에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표 자체도 굉장히 미완의, 이해할 수 없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루트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 심의위원이 하는 것인지 문화일반 분과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화일반 분과에서 하는 모니터링은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썼지만 제가 5월 7일 받았는데 그것과 양식이 달라요. 저는 훨씬 더 복잡한 양식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김지영 팀장님의 보고를 받고 아무것도 해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정병국 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사무처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의 모니터링을 어떤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했기보다는 직무수행의 지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공연 관람을 원하시거나 모니터링 참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혹은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그것을 일단 사업팀에서는 제한 없이 당연히 여건이 되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의사결정 과정의 안건으로 올려서 뭔가 체계를 잡거나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맞고요. 지금 양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이후에 양식에 대해서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치느라, 위원님께서 받으신 것은 이것을 배포하기 이전의 버전으로 받으셨고 그 이후에 사업팀에 저희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장미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2024년도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심의위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TF가 구성되면서 계속 거론되었던 게 저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책임성이나 공정성이 심의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니 들어가지 않는 위원님들도 책임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일반위원님들도 모니터에 들어가는 게 어떠한 의견을 제가 낸 적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도 다른 전체회의에서도 평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가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평가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희 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에서 평가양식을 비상임위원들이 할 수 있는 평가양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바꾸기 전 평가서도 썼고요. 장미진 위원님이 쓰셨다는 게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이후의 것도 별도로 전달 받아서 바뀐 이후 간소화된 양식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기숙 위원** :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장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미진 위원** : 예. 제가 거기에서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에서 계속 꾸준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작년 하반기부터 찾아봤거든요. 회의록, 녹취록에 남아 있는 건 없었고요. 올해 4월부터 나와요. 올해 4월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된 것이니까 문화일반이나 비전담심의위원이 들어간 계기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사업이 변경된 이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선명해지면 이런 갈등이 없는데 그게 어느 날 그냥 쭉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녹취록을 다 봤는데 없었어요. 언제 논의가 되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심의 관련해서는 사무처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체회의 자료를 앞서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수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자료가 도달되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소위원회 관련 건으로 경영전략소위원회가 어제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요. 그러면 전담심의 관련된 것은 이미 안이 있었으면 그것부터 자료를 보내주시고 소위원회 관련 건으로 어제 회의가 있었으면 추가로 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어젯밤에 이메일이 왔고 저는 사실 내용을 오전에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할 게 많은데요. 오늘 보니까 제 발언이 제한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 제출할 테니까 속기록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발언을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오늘은 시간제한 없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위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격렬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회의를 하다가 위원님들 일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사정이 있고요. 위원장님도 마무리가 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는 대대대행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3~4명 남아 있고 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인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전담심의 모니터와 관련해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제한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담심의제에 대한 사무처의 기본적인 이해도와 인식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처 여러분들께서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전체회의 자료 그다음에 회의록과 속기록을 다시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러면 전담심의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작년에 도입이 된 것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다가 폐기되고 작년에 새로 도입이 된 것인데요. 전담심의제는 심의에서 평가·모니터링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심의위원회에 전담심의제 항목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비상임위원과 사무처에서 1~1.5배수 외부 심사후보단에서 추천을 해서 상호 순위를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각 장르별 외부 심사위원이 2024년 11월 15일에 투명성 측면에서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었고요. 외부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한테는 1년간 활동하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위원장님이 위촉장까지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담심의위원들은 전담심의 적용 사업과 미적용 사업까지 전부 다 사무처에서 구분을 해서 작년에 전담심의 적용사업, 미적용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요. 전담심의 적용 사업은 우리 비상임위원 중에 전담심에 참여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죠. 엄청난 진통 속에서 왕치선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 성기숙이 비상임위원 중에는 3인이 전담심의위원으로 1년간 심의, 평가, 모니터링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처 직원 중에는 위원장님이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담심의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 심의위원으로 1년간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인 사실은 전담심의 적용사업에 한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분들에 한해서 심의와 평가 모니터링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동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영 팀장님께서 위원회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제한 없이 운영된다고 하면 사무처에서 규정도 바꾸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담심의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은 2023년도 현장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의견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아웃소싱된 기획사가 평가를 오는데 평가도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고 탁상에서 해서 올려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전담심의제로 가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서 전담심의제를 하자. 그런데 이미 당장 올해 사업부터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전담심의위원을 뽑고 절차 등 그 당시에는 사업도 재편을 하고 있었고 심사위원도 새로 구성하고 있던 참이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하니까 다음부터 하자고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책임심의제를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왕에 전담심의 를 통해서 모니터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공모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 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는 단체나 예술인이 그 다음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전담심의제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제대로 모니터하고 팔로우 업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 바뀌지 않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직원들 중에서 고참을 장르별로 한 사람씩 두자고 해서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위원들이 모니터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설계를 하는데 그게 참고사항으로 협의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셔야 여기에서 의결하는데도 그런 현장감을 가지고 의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담심의제에서 하고 있는 평가를 위한 모니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전담심의위원님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용어를 쓰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네 가지 트랙으로 모니터링이 나뉘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이해가 되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이 네 가지인데 다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이지만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전담심의위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지금 위원장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모니터링인데요. 이것은 대행사가 있고 항목도 다르고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해서 사후평가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후에 계속 사업하는 것에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문심의 모니터링 하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장르의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비장르 위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님들도 아니지만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논의해서, 하나씩 논의안건을 제로베이스로 하고 논의해야 회의가 잘 운영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비장르 위원님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담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비상임위원님들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는 책임심의위원, 전담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니터링 외의 모니터링은 전부 하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면 기존 장르에 포함된 비상임위원님들은 모니터링을 늘 해 왔던 겁니다.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돼서 향후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사업을 할 때 적용이 되는지는 팩트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위원님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직무수행의 일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담심의위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전문적인 모니터링은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면 합의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배은주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전담심의위원이 하는 평가 모니터와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담심의위원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평가

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리고 일반 위원님들이 모니터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일반적 모니터를 하는데 평가를 하듯이 모니터 양식을 주고 하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양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봤는데 당장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무처에 연락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직무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보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것도 다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모니터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만 일반 위원님들이 모니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양식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그것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티켓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신청했는데 이미 다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성기숙 위원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서는 우리 비상임위원들이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모니터링은 하되,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전담심의위원은 당연히 평가 모니터링 하죠.

**성기숙 위원 :** 비상임위원들이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모니터링을,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평가 모니터링은 안 해요.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모니터링은 하되,

**정병국 위원장 :** 모니터링은 할 수 있는 거죠.

**성기숙 위원 :** 모니터링은 하되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성기숙 위원 :**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임위원들이 전담심의제 미적용 사업. 그러니까 일반사업. 기존에 쪽 해왔던 모니터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전담심의제에 참여하는 저를 포함한 비상임위원들한테도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기존에 관행대로 전담심의제 미적용 사업에도 저희들은 동일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논의한 적도 없고요. 비상임위원들이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5년 4월 속기록을 보고 제가 알아서 지난 5월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담심의제에 우리 비상임위원님들이 전담심의위원이 아닌 분들이 모니터링 한 것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전담심의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보려고요.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하루 이틀 하는 공연도 있고 협회나 단체의 축제 성격은 한 달 이상 하는 것도 있고요. 보름 동안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들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다다익선으로

많이 봤을 때 정교한 평가와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전담심의위원들이 촘촘히 다 가졌다고 했는데 사무처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 예산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상임위원님들이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에 반영도 안 되는 모니터링은 현장에서 평가 예산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심의제의 기본 취지가 심의에서 평가 모니터링까지 촘촘하게 해서 공정한 심의. 익년도에 그것을 삭감할 것인지 증액이 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면 전담심의위원들이 촘촘히 봐야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한을 해 놓고, 비상임위원들이 전담심의,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성기숙 위원** :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비상임위원들이 전담심의제 심의에 참여하면 불공정이고 우려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TF 회의를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전담심의제가 이렇게 왜곡돼서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한적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뜻을 파악했으니까요.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이상 류재수 본부장님과 정창호 팀장님과 기획조정팀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현장의 전담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번 평가 모니터링을 외부 용역사에 맡겨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6월 17일 평가 모니터링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담심의 하는 것을 평가 모니터링 업체에서요. 저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순수예술 지원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전담심의 관련된 것은 어렵게 한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모니터링 작업까지도 위원회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업체에 맡겨서 우리 무용 분야는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하는 평가 모니터링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에는 다 불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담심의제 평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년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담심의위원들은 심의단계에서도 기피, 회피 그리고 보안각서도 다 쓰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지금 전담심의제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다닌 지 몇 달째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았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부장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그러니까 장미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외부에 위탁한 경위, 모니터링을 위탁한 경위와 지금 전담심의위원들이 모니터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한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지금 문예기금 선정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은 이전 연도부터 계속 일반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 용역사를 공모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편성이 되면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처에서 다 평가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줄 때 그 예산 비목을 일반용역비나,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증액이나 계속 유지가 쉽더라도 기관에서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는 편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평가 모니터링 업체가 지정되는 것이고요. 그 업체들은 심사 과정은 전담 심의위원들이 다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비 지급이나 기본적인 진행 업무만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르코에서, 예술위원회에서 평가의견서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타당하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의 비목 조정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한데 아예 처음부터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니터링 비용이 사업별로 몇 %로 나와요? 액수로 나와요? 그게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우리가 수용비로 운영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데요. 그래도 모니터단을 결성하거나, 아까 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것은 오리엔테이션.

**정병국 위원장** : 오리엔테이션을 누가 하는데 누구를 오라고 한 건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전담심의위원들 대상으로 평가계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차로 다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평가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로 모니터단에게 전담심의위원들이 모니터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오리엔테이션은 기존에 전담심의위원님들과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지표나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용역사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사항의 집행이고요. 심사위원 구성도 이미 정해져 있고 전담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락을 이렇게 드릴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연일정을 조율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예산의 확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별, 축제별 2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하면 4회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모니터단이 구성돼서 모니터 단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와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오해가 없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에서 모니터단은 이미 전담심의관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이 확정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서포터 조직이 용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용역사에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사안마다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약 1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 평가 모니터링 주관하는 업체한테 편성된 예산. 아까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병국 위원장** : 일반수용비가 아닌 거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용역비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1억 원하고 창작주체가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예경하고 다른 진흥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려가 문제 제기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문화예술위원회가 심의에 있어 권위를 자랑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역행해서 간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의 틀이 안 맞으면 다른 데 전용하던지 불용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자체가 주문했는데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연락이 오니까 당황스럽고요. 급기야 전담심의위원들이 평가 모니터링을 다니시는 것도, 이것이 전담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 보면 전담심의제 관련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계별 심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심의 평가 모니터링입니다. 동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으로 외부의 분들을 위촉할 때도 이분들의 가능 여부. 그리고 1년간 진행되니까 일정 가능 여부를 다 묻고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규정과 절차 위반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렇게 되면 일부 전담심의위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사무처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로 일반 모니터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담심의제 사업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평가 모니터를 하는데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가 부족해서 못나가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용역비로 책정돼서 내려온 예산들. 그것은 계속해서 기재부와 협상을 하면서 전환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잘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담심의를 하고 있는 취지와 이런 부분을 살려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고 내부 전담심의위원들이 직접 평가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이훈경 위원** : 앞에서 말씀하신 전담심의위원들이 전담심의를 맡아서 평가, 모니터링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사안이니까 예산이나 헛수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별개로 위원들의 비상임위원이나 일반 위원님들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연장이기도 하고 장르의 전문가로서 충분히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게 맞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맞는데요. 제가 예산 구조를 보자고 했던 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전체적으로 해요.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예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얘기가 조금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미진 위원** :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갈등은 아니고요. 갈등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장미진 위원** : 용어 선택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장르위원이 전담심의회 사업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담심의를 하지 않은 장르위원이 전담심의회 사업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 장르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일환이었다고 해명이 되었는데요. 사실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24년도 전반기까지는 장르위원이 이런 모니터링을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하반기에 전담심의회제가 생겨서 예민한 시기에 그 전담심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장르위원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 같아요. 성기숙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담심의를 하는 사업인데 전담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일반수용비 예산의 한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장미진 위원** : 성기숙 위원님의 말씀은,

**정병국 위원장** : 그게 아닌가요?

**장미진 위원** : 지금 전담심의를 하는 장르위원들이,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전담심의회위원이 평가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예산 때문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미진 위원 : 예산만 확보되면.

정병국 위원장 : 당연하죠.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처 지원팀장님도 아까 발언을 하시면서 김지영 팀장님께서 소위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을 전담심의 비상임위원들이 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병국 위원장 :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성기숙 위원 : 평가와 모니터링은 쌍으로 가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평가를 왜 자꾸 얘기해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전담심의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전담심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기숙 위원 :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자꾸만 제 말을 꼭해하시니까 그런데요.

성기숙 위원 :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담심의제에 참여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맞다고 봐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전담심의제 비상임위원들이 참여 관련해서 논의할 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최고의 권한은 심의·의결입니다. 고유권한이고 최고 상위 개념의 권한이 심의와 의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김성범 기획팀장님, 비상임위원의 심의·의결 권한이 최고 상위 개념의 권한이 맞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문예진흥법상 의결사항에 대한 말씀인가요?

성기숙 위원 : 예.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의거하면 우리 비상임위원들의 직무수행에서 가장 고유권한이고 상위 개념의 권한은 심의·의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담심의에 참여한다고 비상임위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기를 해 보시면 심의만 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게 전체회의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임위원들은 최고의 권한인 의결권한을 박탈내지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처의 류재수 본부장님과 송시경 사무처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박탈이 아니고 다른 용어라고 해서 나는 배제라고 표현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면 비상임위원이 법령에 의해서 보장된 심의·의결 권한 중에 최고 권한인 의결권한을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에서 배제하고 의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상임위원님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다니는 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성기숙 위원 : 직무수행의 고유권한인데 심의·의결에서 의결권한은 배제 내지는 박탈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전담심의제로 전환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개 단체라고 하면 일단 신청된 서류가 저희한테 NCA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신청서, 앞으로 계획서 그다음에 그 단체에 대한 이력,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개인이력 그다음에 공연실적 영상과 공연자료 사진과 팸플렛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1차가 걸려져서 대면으로 그 예술가들과 20분가량 심층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현장 평가모니터링이 이루어지거든요. A라는 단체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

정병국 위원장 : 이제 정리를 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저희가 다녀보면 편차가 큼니다. 계획서와 인터뷰를 했을 때와 실제 공연에 가면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제가.

성기숙 위원 : 지금 제 발언의 기회가 제지가 되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만큼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제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성기숙 위원 : 제가 양보까지 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양보를 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회의는 제가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진행하시는데 발언권을 제가 양보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제가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요. 공정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님들의 자율적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컴플레인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제한해서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여기에 시계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발언하실 때 3분 내로 하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서로 의견이 교류되어야지 한번 마이크를 잡고 계속 하면 제가 제재를 한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죠. 서승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승미 위원** : 자꾸 모니터링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설왕설래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성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확하게 파악이 되네요. 처음부터 굉장히 자의적인 생각을 일관하고 있는데 심의·의결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의결 그 앞에 추천까지 가서 이렇게 유례없는 심의제도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한한 진통이 있었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임위원이 “다른 대안이 없을까?” 라고 해서 다른 대안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그야말로 책임 있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왜 빠져야 되냐?” 라고 하는 성기숙 위원님의 의견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전후로 해서 심의제도 안에 들어가느냐 밖이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정갑영 위원** :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정병국 위원장** : 끝나셨어요?

**서승미 위원** : 예, 하십시오.

**정갑영 위원** : 자꾸 도돌이표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요.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이라고 같이 사용하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비상임위원의 모니터링, 평가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비상임위원의 모니터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폭넓게 위원으로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전반적으로,

**정병국 위원장** : 위원의 임무죠.

**정갑영 위원** :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니터링이라고 하지 말고 참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게 예산상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제가 그 범위를 보려고요.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그런 예산 내용을 저한테 보고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다음 회차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자꾸 반복해서 과거로 왔다갔다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괜히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 비상임위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직무상 우리가 심의하고 우리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가서 보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공연이나 전시든 예산이 허용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보시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셔야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전담심의위원들이 하는 평가 모니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평가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반용역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못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을 한번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더 이상 논의해야 의미가 없고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게 문제점이다.” 라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다음 회의 때 예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놓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더 이상 반복해서 논의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김진각 위원** : 모니터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모니터링은 사실 전담심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담심의제와 관련된 것들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이후 일차적으로 끝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전담심의제를 해 보니까 어떻다는 게 저희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담심의위원들이 했던 심의결과가 그들만의, 그 장르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비상임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참관을 하고 쓴다는 것들이. 평가를 한다는 게..... 평가라기보다 페이퍼를 작성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보고나서 페이퍼를 작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세요. 쓰실 분들은 쓰고 안 쓰실 분은 안 쓰시면 된다고 봅니다. 꼭 내라 마라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래서 저도 몇 번 참관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존 전담심의위원은 아니지만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페이퍼를 작성했는지 보내 달라고 해서 봤어요. 위원장님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없습니다.

**김진각 위원 :**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담심의위원들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배은주 위원 :** 저희가 지금 이 문제만 갖고 집중해야 하는데 책임심의관, 전담심의관의 시작점을 얘기하면 또,

**김진각 위원 :** 그게 아니고요.

**배은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담심의제도는 진행중입니다.

**김진각 위원 :** 진행중인 게 아니죠. 이미 한번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배은주 위원 :** 잘 알겠어요. 그런데 심사 중이고 모니터링과 나중에 사후평가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심의가 끝났잖아요. 심사 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사후 절차잖아요.

**배은주 위원 :** 지금 문제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배은주 위원님 하실 말씀만 하세요.

**배은주 위원 :** 문제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만 하면 해결이 안 되고 제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비상임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에 보고서를 쓰게 되면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만약 보고서를 안 써도 되는 거면 ‘참관’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담심의위원이 들어가는 모니터링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그 보고서를 공부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

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이해하면 어떨까요?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장르위원님들이 들어가는 모니터링은 ‘일반 모니터링’ 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서를 쓰지 않는 것은 ‘참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난번 시범적으로 했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안 나왔지만 현장의 여론조사는 몇 차례 했어요. 해서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그래서 전담심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만족하다.’ 라고 현장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전담심의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이것은 우리가 심의제도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연구과제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회의를 하는데 각자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상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견은 말씀하시되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듯한 식으로 해서 서로 감정이 안 상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의견은 이렇다.” 라는 정도로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시죠.

**성기숙 위원 :** 제가 오늘 전담심의제 비상임위원들의 평가 모니터링 참여하는 것에서 발언한 것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주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정리하시기를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담심의제 평가 모니터링 점수 반영이나 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까지 그랬어요.

**성기숙 위원 :**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의도 해봤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 현장에서 안 받아들이든, 안 하는데 그것을 어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직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혼내지 마시고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현장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기숙 위원 :** 차분히 말씀을.

**정병국 위원장 :**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요.

**성기숙 위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의·의결을 통해서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용어상, 용어가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참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각 위원님께서 전담심의제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담심의제라는 것은 심의, 평가 모니터링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게 전담심의제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난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시범사업은 제작년에 해서 작년에 설계된 것이고 2025년 저희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작년에 의결한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거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전담심의위원들이 평가 모니터링까지 다 마무리하는데 그게 전담심의위원들만 한다는 그런 사고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미국의 NEA라고 있잖아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기숙 위원** : 아니, 위원님.

**김진각 위원** : 잠깐만 들어보세요. 앞으로 전담심의제를 개선할 때 나올 얘기지만 미국의 연방 예술기금에서는 심의할 때 패널로 비전문가가 들어가요. 비전문가 1명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여기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라고 하면 비상임위원 중에 비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성기숙 위원** : 전담심의제 작년 전체회의 자료하고 속기록을 다시 복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담심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요. 한번 복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제 앞으로 제가 제재합니다. 발언권을 저한테 안 받고 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하셔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왜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은 이상해지잖아요.

**성기숙 위원** : 발언권 안 주시나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최소한 회의를 하는데 원칙은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안전에 대한 말씀인가요, 성기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 보고안전에 관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저한테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듯한, 강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기숙 위원** : 말이 다 안 끝났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일하게 제재를 해서 균등하게 발언의 기회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유효하십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회가 앞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최소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분이 길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얘기를 안 하려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발언권을 얻으면 3분 내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해 주시고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회의 운영상 그렇게 하려고 하나까 협조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요. 저는 의문이 나는 건 문서로 문의를 하거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전달심의제 관련해서 송시경 사무처장님, 류재수 본부장님, 정창호 팀장님께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도 전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정리 중이다.”, “빠르게 정리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 오는 안건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과 많이 달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하자면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까 비상임위원들의 직무수행의 하나로 평가 모니터링을 다니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평가 모니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니터입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는 수없이 사무처에 제안도 하고 요청도 하고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사무처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원님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위원님으로 위촉 받을 시에 위원회 역할이나 기능 부분은 법이라든가 우리 규칙 등을 통해서 다 인지를 하고 하시는 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사무처에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처에서는 그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서포터 하는 게 사무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오늘 논의는 종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이면 예산, 규칙이면 규

직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2025년 7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그전에 의견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이훈경 위원** : 기록으로 좀 남기고 팩트를 체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2024년 4월에 다녀온 자카르타 살리하라 문화재단 관련해서, 웨딩코리아 모니터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평가서에 “3~4줄의 내용 평가밖에 없다.” 라고 계속 의문 제기를 하셔서 제가 위원님께 전달된 평가서와 제가 보낸 평가서까지 비교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게요. 2024년 4월 제가 자카르타에 다녀온 평가서에 대해서는 평가표 2장과 평가서 1장 반과 사진 19장을 첨부해서 제출했으니 모 위원님께서 제가 3줄 밖에 평가를 안 했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회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제교류팀에서 저하고 만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런데 오늘 기타 안건은 없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올라와 있는 회의자료 중에는, 사전에 전체회의 안건에 대해서 다 드렸잖아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지금 굉장히 뜨겁게, 작년의 진통이 다시 되살아나서 저는 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위원회도 현실적으로 변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구체성은 없더라도 이런,

**정병국 위원장** :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성기숙 위원** :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흐름이나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이야기 되지 않을까 생각했구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치 집단화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을 때는 제가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성기숙 위원** :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뮤지컬에서 토니상을 받아서 굉장히 쾌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위원회가 뮤지컬까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가 우란문화재단인가 민간재단에서 후원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오늘인가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쩌면 해피엔딩’ 관련된 자료 전시를 하면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위원회가 뮤지컬 지원도 하고 있고 연극 분야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우리 위원회도 오래된 국립공연 예술자료관도 있고 뮤지컬 지원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우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하면 당연히 해요. 언론에서도 잘 보도를 안 해주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문화재단이나 기업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성공사례를 많이 내 보내야 다른 기업들도 후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정기부라고 해서 계속 권장을 하는데요. “일은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지정해서 줘라. 그러면 이름을 계속 내 주겠다.” 조금이라도 더 해서 문화 현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한 것을 꼭 생색내기 보다는, 나면 좋겠지만 후반부에 말씀하신 기획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뮤지컬까지 지원하는 기관인데 문예위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생색을 내려고 한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의견인데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기숙 위원** : 이 이야기도 위원회에서 기타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좋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예전에 아시다시피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은 위원회로서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병국 위원장** :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외에서 한국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갑니다만,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으면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초청해요.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그런 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강도 이런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구나.” 심지어 우리가 배워온 영국조차도 함께 와서 예산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자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IFACCA 총회를 저희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해서 고생은 했지만 전세계에서 오셨던 패널 그리고 참가 대표자들이 평가는 세션이 36개 세션에 103명의 패널이 와서 분야별로 토론을 했는데 대부분 세션에서 결말은 “한국을 모델로 삼자.” 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한 결과라고 봐요. 다만, 치열하게 논의는 하되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상대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IFACCA도 중요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 후속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향후 이런 행사를 지속할 때는 어떤 개선점이 될

요하고, 위원장님은 해외에 많이 다니셔서, 지금 짧게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이슈도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논의가 없으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제가 아쉬운 것은 몇 분의 위원님들은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나가서도 네트워킹을 할 텐데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은 다 참여해서 함께 듣고 네트워킹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문화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오면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면서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하는 것은 교류협력팀이 이것을 하느라 3개월을 밤낮없이 하다 보니까 거의 번아웃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쫓고요. 휴가를 갔다가 오면 전체적으로 평가 회의를 할 것이고요. 평가한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장단점과 보완해야 될 것. 향후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하나 또 중요한 성과도 있고 중요한 행사인데 아창제를 마쳤잖아요. 그것에 대한 무슨 평가가 있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어떻게 되었죠? 아창제는 평가 회의가 있나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아창제는 계속해서 평가도 했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라운드테이블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7월에 왕치선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두 번에 걸쳐서 개선 회의를 했는데 7월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왕치선 위원님과 얘기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왕 위원님 말씀하시죠.

**왕치선 위원** : 오늘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이거라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실은 제가 극장운영팀장님께 오늘 좀, 왜냐하면 오늘 안건이 좀 적더라고요. 오늘 보고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빠서 다음 달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러십시다.” 라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문화일반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저는 올 초에 공연을 보러가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지 얼마 되지 않고 앞뒤 전후를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요. 이것은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서 점차 자료를 받아서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 6년에서 7년 동안 관객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많이 오셨을 때는 1,700명, 1,600명까지 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관객수를 보면 700명, 779명, 400명 이렇게요. 양악 같은 경우도 600명, 900명 등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되었을 때 1,60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6년 동안 과장하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실은 현장, 그러니까 작곡계 사람들에게 여쭙보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거나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여태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게 이상해서 말씀드렸고 회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게 저부터도 추진위원장이 은사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정병국 위원장** :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내세요.

**왕치선 위원** : 그래서 몇 번 했다가 지난 화요일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라운드테이블에서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무직원들이 예술위원회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위 직원이신가요?” 라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성과가 이렇게 없으면, 실은 밖에서 지원을 하는 팀들이면 바꿀 수도 있는데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런 얘기가 나오구요. 또 하나는 예술위원회에서 이분들한테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직원인가요? 직원이 아닌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이죠.

**왕치선 위원** : 위탁을 주는데 사무실을 주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케이스별 상황이 다르니까요.

**왕치선 위원** : 운영하는 경비가 38%, 40%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왕치선 위원님과 실무진이 논의를 해서 안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라운드테이블로 하시다가 뭐하면 전체회의에 갖고 와서 논의를 해야, 어떤 안을 갖고 올려야 여기에서 의결을 하죠.

**왕치선 위원** : 다음 달에 할 것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왕치선 위원** : 조직운영에 문화일반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실 수 있다면.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여기 문화일반에 있는 위원님들을 넣고 전문가도 넣어서 TF팀을 만들던지 소위원회를 만들던지, 그것은 일시적인 소위원회니까 의결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셔서 협의해서 안을 주세요.

**왕치선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야 그 안을 갖고 우리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중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일입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우리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곳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2025년 7월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거기에 앞서서 아까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우란문화재단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을 지원했다면 연이어서 저희들이 2017년도 3억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지원내용이 뭐냐하면, 창작뮤지컬 해외 공동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일본과 공동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할 때 3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7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회의 종료)

